

쌀 양허제외 고추·마늘 등 현행관세 유지



EU는 선진경제국에서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과 투자의 기회로 투자, 인적교류 또한 크게 확대되어 EU의 거대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김진진 농림수산물부 지역무역협정과장

거대경제권과의 FTA

지난 3월 15일,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, 이로써 유럽-동아시아-미국을 잇는 FTA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었다. 또한, 한-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맺는 최초의 FTA인 만큼, 우리나라는 글로벌허브국가로서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EU는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추가 가입하여 총 27개국으로 5억명의 인구나 16조 7천억 GDP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교역시장이 되었다. EU와의 FTA는 수출시장의 확보와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,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의 촉매제로서 한-미 FTA와 함께 우리 경제 도약의 또 다른 발판이 될 것이다.

한EU FTA 협상결과

한·EU FTA는 2007년 5월에 개시하여 여덟 차례 협상(2007년 5월~2009년 3월)과 4차례 통상장관회담 이후 대통령 유럽 순방을 계기로 최종합의안을 마련하였다. 이후, 2009년 7월 13일 한·스웨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 후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어 현재 이행중에 있다.

한·EU FTA에서 농수산물은 주요 품목의 민감성 반영을 위해 양허제외, 현행관세 유지, 계절관세 등 예외조치 확보, 관세 존속기간 장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. 그 결과로 쌀은 양허제외, 고추·마늘·양파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, EU에

서 연간 2억달러 이상 수입되는 냉동 삼겹살을 비롯한 돼지고기, 닭고기, 유제품 등 축산품목은 관세 존속기간을 장기화하였다. 수산물 또한 대 EU 수입과 국내생산이 많은 냉동 고등어, 냉동볼락 등의 관세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토록 하였다.

이에 비해 EU측은 쌀을 제외한 99%가 넘는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5년 이내 완전철폐토록 하였고,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하도록 하였다.

영향분석 및 피해대책

2010년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한·EU FTA 경제적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1,870억원으로 추정되고, 약 90%가 양돈·낙농 등 축산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 해당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세철폐 기간동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09년 7월부터 생산자대표, 전문가 등으로 T/F를 구성, 축산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, 2010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조원 규모의 한·EU FTA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. 한·EU FTA 대책은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value-chain 분석에 따라 제시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한·미 FTA 대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발전시켰다.

발효 및 기대효과

지난 7월 1일 발효 후, 약 9개월여 경과한 한-EU FTA에 대해 발효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른



감이 있다. 그러나 2009년 이후 대 EU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발효된 해인 2011년에는 농수산분야 수입액이 전년 대비 약 37%, 발효 후 6개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6% 증가한 것으로 보아 향후 교역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. 특히 EU는 선진경제국에서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시장과 투자의 기회로 투자, 인적교류 또한 크게 확대되어 EU의 거대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한-미 FTA 발효, 한-터키 FTA 체결 등 타 FTA의 진행상황이 한-EU FTA가 이행중인 국내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간을 두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, 기체결 FTA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미·대EU 수입액이 그 중 약 63%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한-EU FTA, 한-미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. ㉞